



배포일자 : 2025년 12월 23일(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2025년 성과 보고 등 워크숍 성공적 개최

- 전국 소상공인 조직 한자리에... '25년 활동 성과 보고·'26년 활동 계획 공유
- 오세희 위원장, "2026년에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소상공인 정책 실현과 당 외연 확장에 이바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오세희)는 22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워크숍」을 열고, 2025년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2026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언주·조정식·서영교·전현희·민병덕·강득구·이건태·문정복 의원을 비롯해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상임 부위원장·분과위원, 시·도당 소상공인위원장, 업종별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회원 등 약 140명이 참석했다.

오세희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으로 현장의 쟁점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정책과 입법으로 풀어왔다"며, "2026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소상공인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숍 축하를 위해 참석한 의원들은 "민주당은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당과 국회가 함께 현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1부는 활동 우수자 당대표 표창·위촉장 수여, 2025년 위원회 활동 보고와 2026년 활동 계획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2025년 활동 보고에서는 전국 16개 시도·21개 전통시장 현장 간담회, 47개 업종별 단체와의 정책 협약, 업종별 소상공인 간담회 등 한 해 활동 성과를 종합 정리했다.

2026년 활동 계획은 '지방선거 기여'와 '민생 중심 정치 실천'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으며, 분과 체계 정비와 현장 간담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현안을 당 정책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2부는 특별강연과 정부 지원사업 설명,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대표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가 진행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수축 사회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임송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은 2026년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오세희 위원장은 "2025년은 전국을 돌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 언어로 정리한 한 해였다"며, "2026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공약과 정책으로 연결해 민생 회복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소상공인 후보자 지원과 전국 단위 현장 간담회를 지속해,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민생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끝.

※ 붙임

1. 2025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워크숍 현장 사진
2. 행사 포스터 등